

# 2019년부터 고교육성회비 전액 교부

## 김승환 교육감 “고교 의무교육 대비 감액조정액 연차적 줄여 3년 안에 전액 교부되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동안 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단위학교에 배정할때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만큼을 감액해 교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교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징수할 근거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결국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

고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징수하기 힘들 것”이라며 “(고교 의무교육 시행에) 사전 대응하는 차원에서 감액조정액을 연차적으로 줄여 3년 안에 전액 교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현 감액교부액 76억5,253만7,000원의 70%인 53억5,677만6,000원만 일선 고교에 감액교부하고 그 차액인 22억9,576만1,000원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2년차인 내년에는 현 감액교부액의 40%(30억6,101만5,000원)로 조정하고

차액인 45억9,152만2,000원을 고교에 교부할 예정이다.

이어 3년차인 2019년부터는 감액 없이 전액을 교부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그 전에 시행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3년 안에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이 완전한 의무교육으로 가는데 맞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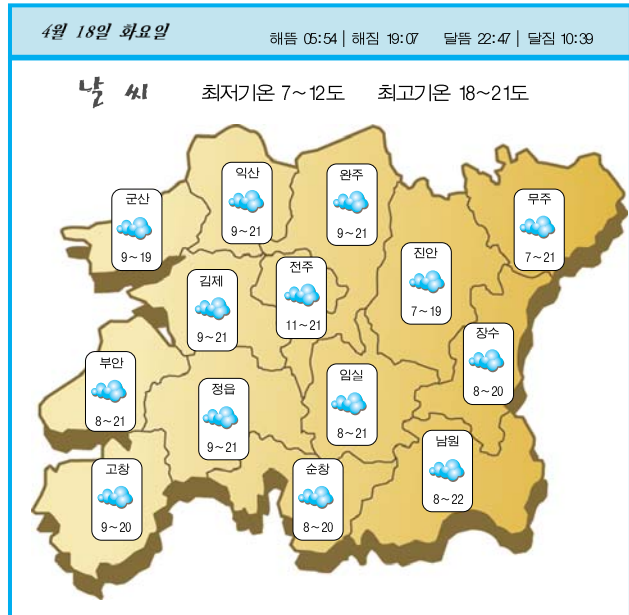
이어 “의무교육은 반드시 고등학교까지 확대돼야 하고 무상교육이 아닌

무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바뀌면 바로 착수해야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학부모 부담의 자체수입으로 학교 회계에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다.

고교의 경우 분기별 학생 1인당 5만400~5만4,600원(연 20만1,600~21만8,400원)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익산가온초, 법률가초청 교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 범죄양태·유형 대처 방법 등 설명



올해 초 개교를 한 익산 가온초등학교(교장 왕미경)은 17일 오후 학교 시청각실에서 최원영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길대표)를 초청,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현대 사회의 주요 범죄 가운데 한 영역을 차지한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는 이미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사회 병리현상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주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사회문제를 교육기관의 하루 단계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시도하고있어 모범 사례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초 개교를 한 익산 가온초등학교(교장 왕미경)은 17일 오후 학교 시청각실에서 최원영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길대표)를 초청,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교육에서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학교 등 직장내, 또는 어린이들에 대한 성관련 범죄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가정과 다중집합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 관련 범죄의 양태와 유형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면서 특히 이같은 범죄가 불시에 발생할때 당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판례와 사

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최 변호사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는 것이 향후 건강한 성 인식과 성 인지 조화를 올바르게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면서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교육기관에 종사

하는 교원들이 이러한 인식과 교육관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어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 관련 교육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왕 교장은 “사실 우리 주변에 성 관련 지식이나 정보는 차고 넘치는 게 현실이지만 막상 그 범죄의 대상이 됐거나 주변에서 그런 광경을 목

격, 인지했을 때는 어찌 할 바 몰라 당황하게 되는 모순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따라서 오늘 법률가를 통한 성 범죄 관련 교육은 이같은 행동과 우려를 한방에 정리하고 씻어주는 청량제와 같은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마한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새롭게 단장

마한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이 시설개선을 마치고 17일부터 재개장했다.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영장 균열 및 보수 등 공사를 지난 2016년 11월부터 시작했다.

수영장을 재개장에 따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초등 기초수영, 학생 방과 후 및 토요일, 희망나눔(장애학생) 교육지원 수영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초등 기초수영은 익산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 수영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병행하여 수상 안전 교육을 하고 학생 방과 후 및 토요일 영 프로그램은 수상안전 및 기초 수

영교실 중급 수영교실, 고급 수영교실 등 10개 과정을 진행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신체활동 및 체력 증진을 위해 물놀이 체험활동 등 수영교실을 장기과정으로 실시한다.

마한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이번 공사에 따른 수영장 휴장으로 불편을 초래했던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린다며 “시설개선으로 보다 만족스러운 수영장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단계별 수영교실 및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는 물론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어린이날 ‘일일 수의사 체험’ 참가 어린이 모집

### 5세부터 13세까지

전북대학교가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김민수 교수)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일일 어린이 야생동물 수의사 체험행사’를 마련, 이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및 인원은 21일까지이며 유치원(5세)부터 초등학생(13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63-850-0976)나 이메일 (rj081@jnu.ac.kr)로 보내면 된다.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과 오후 15명씩 나눠 익산 특성화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수의사가 되어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나고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진료실과 수술실, 방사선실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새집 만들기 체험도 마련돼 있다.

참가신청은 전북대 홈페이지 (<http://www.jnu.ac.kr>) 일반공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063-850-0975)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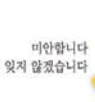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가온초등학교  
복합한 교육 공동체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자'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